

[특허분쟁] 새로운 미국 NPE에서 Startup에게 보유한 1000여개 특허의 free license 무
료 라이선스 offer 프로모션



흥미로운 NPE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iPEL라는 NPE가 지난 2017년 5월에 초기자본 \$100 million (약 1천1백억원) 규모로 출범하여, 현재 1000여건의 특허를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주된 특허 포트폴리오 기술분야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home and business electronic devices, in all categories, from the hand-held to the conference room; networking technologies, ranging from provider to in-home and every tier in between; and digital rights management technologies, in all categories, from streaming to physical products.

iPEL에서 출범 1년 후 공표한 라이선스 프로그램이 매우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2018년말 까지 연매출 \$5 million(외국기업은 달러 환산한 액수) 미만의 소기업, 벤처, startup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특허에 관한 기간 1년의 royalty free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offer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규모가 더 큰 기업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특허를 대상으로 하는 정액제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offer 하고 있습니다. 정액제 라이선스 프로그램은 3가지 카테고리(Silver, Gold, Platinum)로 나누어 로열티 금액 산정조건 등을 미리 정해서 공지하여 추가 협상 없이 적용하는 Haggel-Free, No-Fault License 프로그램입니다.

전통적 특허라이선스 실무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NPE business model인데, 계약법상 약관과 유사해 보입니다. 새로운 모델이 업계에서 성공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iPEL에서는 올해 \$100 million (약 1천1백억원) 규모의 특허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ipel.com](http://www.ipel.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리사23년/변호사 15년, 특허심판소송, 민형사, 손해배상, One-Stop Service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